

□ 홍위병 시대와 오늘의 대자보 문화 비교연구

대자보, 개별적 토론의 장 변화 필요

오 일 환

(중앙 박물관 연구원)

서양에서 벽신문으로 불렀다. 대자보는 고대로부터 지배자들의 포고령과 이에 대항하는 집단들의 전단 형태로 대별할 수 있지만 모두 소식 전달 매체의 하나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1957년의 반우파투쟁(反右派斗争)에서 등장하던 대자보는 문화대혁명시기 특히 초반의 홍위병운동에서 대대적인 확대와 전단 형태로서 그 위력을 발휘하였다. 이 당시 대자보의 특색은 혁명성을 나타내는 붉은 색상과 타도의 대상이 되는 백색으로 극명한 대조를 나타내면서 만화형식으로 대자보에 그 목표와 내용을 표현하였다.

홍위병은 수많은 청년학생들의 가슴 속에 영웅으로 자리 잡은 혁명 장군이었다. 어느 곳 할 것없이 홍위병들이 가는 곳마다 조반유리(造反有理)의 전가(戰歌)가 울려 퍼졌고 수많은 지도자와 과학자, 문학가들을 무참하게 타도하였다.

불과 2년에 걸친 짧은 시간의 홍위병 운동은 극도의 개인에 대한 숭배와 10여년이나 지속되어진 문화대혁명에 불을 당기는 도화선 역할을 하였으며 그들의 조직이나 행위, 사고 방식 등 모든 것이 문화대혁명의 정신적 기반으로 되었다.

당시 홍위병을 선전하던 도서는 수백종에 달하며 문장 역시 통제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신문에 대항하여 홍위병을 선전하고 농촌이나 도시에서도 이들의 탈권운동에 동참하였다. 모택동에 의하여 정치 투쟁의 하나로 이용된 대자보와 홍위병 운동이 당시의 프랑스, 독일 등지의 학생들에게는 '배워야 할 조류(潮流)'로 인식되었고 대자보가 전세계로 확대 보급되었다.

대항매체의 대명사

그러면 대부분 대, 중학생이 참가하였던 홍위병운동 중에서 대자보상에 기록되었던 언어상의 특징과 그들의 심리적인 요소는 어떠한가.

첫째, 모택동과 관련된 부분은 특이한 글자체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모택동 개인에 대해 극도의 숭배와 그를 신격화함으로써 광적으로 강렬한 숭배성 언어를 사용하였다. 예를 들

면 최(最)를 거듭하여 사용하는 형식으로 '최홍최홍최홍태양(最紅最紅最紅太陽)'이나 '최최경에적위대령수모주석(最敬愛的偉大領袖毛主席)' 등으로 표현하였다. 이들의 모택동 숭배는 순결하게 출발을 하였지만 이후 혁명의 이름하에 넘치는 열정으로 변모하였고 모택동의 권위에 대해 열광적인 숭배심리까지 작용하였다.

파괴적 언어·행동 주류

두번째는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용어의 사용이다. 적이 아니면 동지, 혁명 아니면 반혁명, 옛것 아니면 새로운 것, 무산계급 아니면 자산계급 등의 대립적이며 도식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전면적(全面的)인 부정(否定)을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하였다. 따라서 타도 대상들에게는 '반도

론까지 저버리는 욕까지도 서슴없이 행사하였다. 그리고 중형 무기류와 고사포 종류까지도 사용하였는데 이는 무장 투쟁으로 해방을 맞았기 때문에 군사적인 문학이나 예술은 물론 일반인들의 일상생활에까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전통, 문화 풍속, 관습 등은 모두 타도의 대상이 되었고 그들이 사용한 강렬한 언어만큼 행동도 강렬하였다.

네번째는 천편일률적으로 각종 방식들의 과격화된 격식을 가진 중첩된 언어를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첫머리는 '만수무강(萬壽無疆)'이나 '신체건강(身體健康)' 등으로 시작하였으며 '타도(打倒)×××', '무산계급문화혁명 만세(無產階級文化革命 萬歲)', '만세 만세 만만세', '안된다 안된다 천만부당 안된다' 등등 분노의 극치를 나타내는 반복성의 언어를 사용

국적으로 인적 대교류를 실행함으로써 사회상황을 개선시켰고 방향도 정치영역에서 경제영역으로 확대되어 국민경제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나 전국의 당정지도기관을 습격하고 전면적인 탈권 투쟁이 내전으로 전개되자 홍위병까지 파벌투쟁에 참가하여 사회혼란이 가중되었다. 또한 대량의 귀중한 문화유산이 파괴되었으며 많은 간부, 지식분자들이 박해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양비와 민심에 커다란 균열을 가져 온 4대는정(대오(大鳴), 대방(大放), 대자보(大字報), 대변론(大辯論))은 백가쟁오(百家爭鳴)시대를 방불케하였다. 그리고 질적, 양적으로 고등교육 모두를 현저하게 저하시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더욱이 다시 혈통론(血統論)을 등장시켰으며 모택동 사상을 왜곡시켰던 것이다.

이로써 개방화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자보는 조직에 의해 부각되는 것 이외에는 개별적인 토론의 대자보를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정기적으로 시의적절한 내용이 부각되고 스스로 제거되도록 하는 관리도 필요하다.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학교 행정을 알리는 역할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대자보는 이제 더 이상 어떤 권위의 대상도 아니고 사상 투쟁의 힘도 상실하였지만 아직은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소식문화 공동매체의 하나이다. 따라서 관심가는 토론의 장으로 포용하고 변화하지 않는 대자보판은 하나의 휴지 조각에 불과한 광고지 부착판 구실 밖에 하지 못하며 또한 그러한 활동은 무의미할 뿐이다. 그러나 대자보도 조만간 정보화된 통신망에 밀려 자취를 감추지 모르지만 다량한 공동의 변화를 느끼고 새로운 합일점을 찾아 내기 위한 대자보 건설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요구하는 정당한 대자보 문화일 것이다. 중국의 한시대를 움켜쥐었던 역사속의 홍위병 지도자들은 현재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있으며 인민들의 가슴 속에는 이 운동이 빠져진 역사적 교훈과 깊이 남아 있다. 이를 뒤집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대자보 문화에 대한 진지한 이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다.

선동적 언어사용 문화대혁명 기폭제 구실

민주화 운동 실패뒤 광고형태로 전략

소식문화 형성하는 공동매체 되어야

하였다. 그리고 비상(非常), 분분(分分), 최최(最最), 무한(無限) 등의 문구나 '천만번 죽어도 마땅하다'는 등 가장 극단적인 격식의 언어를 사용하여 모욕적인 발언 뿐만 아니라 타도 대상자의 이름을 거꾸로 써놓음으로써 극도의 멸시와 비하를 하였다.

이러한 홍위병시대의 대자보와 견주어 볼때 우리의 대자보도 어느 면에서는 이들과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다. 대자보가 전체의 의사일 수는 없다. 물론 개인도 무언의 압력을 느끼지 않고 토론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비상(非常), 분분(分分), 최최(最最), 무한(無限) 등의 문구나 '천만번 죽어도 마땅하다'는 등 가장 극단적인 격식의 언어를 사용하여 모욕적인 발언 뿐만 아니라 타도 대상자의 이름을 거꾸로 써놓음으로써 극도의 멸시와 비하를 하였다.

대자보 문화 반성 있어야

이처럼 문화대혁명 운동에 기폭제가 됐던 홍위병의 대자보도 7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서 천안문 사태로 분출이 되었으나 위협적인 행동에 대한 국가의 엄격한 제약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소강상태로 되었다. 그러나 이후 8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는 '민주(民主)'에 대한 실제 파악이나 개념과 사상 또는 형태 뿐만 아니라 정책이나 현재의 정황에 대한 옹호와 비판 등의 대토론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러한 80년대의 민주화 운동도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됨에 따라 더욱 더 국가의 법적 제약으로 대자보는 사라지고 현재는 포조란(布告欄)이라는 광고형태만의 소식관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홍위병 운동은 전

나를 바꾼 이책

남 순 전

<문리대 물리학과 교수>

이 책을 처음 읽은지 벌써 17년 전의 일이다. 역사에 관한 책은 많지만, 우주의 초기 3분간을 일반인을 위해 기술한 책이고 1979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저자의 유명세 때문에 구입해 두었던 것을 어느 한가한 휴일날 낮에 집에서 읽기 시작했다.

인류는 문명 발달 이후 우주의 기원과 인류의 기원에 대해 궁금해 해왔으며, 나름대로의 설명을 갖고 있어 왔다. 바이킹의 우주 기원에 대한 설화로 운을 댄 저자는 "누구의 종교

스티븐 와인버그의 '처음 삼분간'

태초의 우주를 이해하는 안테나

적 감수성을 건드리고 싶지는 않지만...(이러한 설명들이) 우주의 기원에 관한 아주 만족스러운 상상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 이유로는 "대답만큼이나 많은 질문을 일게 하고, 대답마다 초기 조건에 있어 새로운 복잡성을 더 요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주의 초기 상태에 관한 연구가 과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1965년 펜지아스와 윌슨이 발견한 우주의 배경복사(우주의 현재 온도가 절대 온도로 3도 정도를 나타내는 마이크로 웨이브)를 알게 된 후일 것이다. 이후로 많은 발전이 있어 왔고, 특히 가장 근본 입자들을 다루는 소립자 물리학과 가장 큰

우주의 기원과 '점'은 인간 사고 활동의 큰 승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호기심과 자신감을 나에게 불어 넣어준 결정적인 책으로서 이 책을 들 수 있다.

저자는 6장에서 이론물리학자들의 소심성 때문에 우주에 대한 이해와 관측이 지연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1948년에 이론적 예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65년의 초기 복사의 우연한 발견까지 발전이 지연된 것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흔히 물리학에는 우리의 이론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잘못이지 않음이 잘못된 경우가 있다. 우리의 책상 위에서 장난하는 숫자와 방정식이 실제와 관

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는 어렵다" 이는 이론학자의 오만스러운 말처럼 들릴 수도 있으나, 바로 이러한 점이 이론물리학의 매력이라고나 할까. "흔히 접하게 되는 과학사의 사료에서는 성공사실들, 예기치 못한 발견들, 재기 넘치는 증명들, 도는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이 해내는 마술과도 같은 비약들만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해하지 않고는 정말로 과학의 성공을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저자의 말이 당시 물리학이라는 큰 학문의 주변에서 매우 기가 죽어있던 나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말이 되었다.

책을 다 읽고 배란다에 서서 밖을 바라보니 참새들이 지저

귀고 있었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있던 혼돈스러우면서도 조화로운 태초로부터 현재까지로 순간적인 시간 여행을 한 기분이었다. 소립자들만이 떠다니는 우주에서 아름다운 하늘과 복잡한 인간사까지의 엄청난 괴리를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하여, 우주와 물질의 근본에 대한 나의 추구는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보이는 수식이 과연 자연을 기술하는데 쓰임이 될까하는 회의가 들 때마다, 이때 경험한 경외감을 상기하며 연구를 하게 된다. 과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도,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 실용적 기술만을 중요시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학생들이 쉽게 포기해야 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이 앞선다. 도전하기 좋아하는 진취적 신세대들에게 이 책이 잘 맞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며 글을 마친다.

세시봉

최수정 학술부기자

사라져야 할 '데드 맨 워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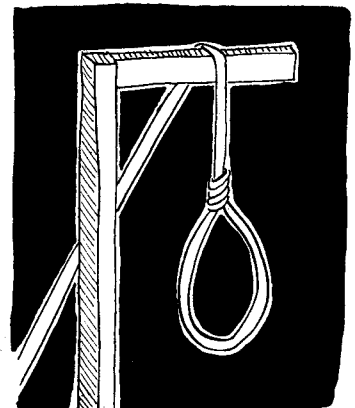
자신의 목숨을 삼키며 걷는 사람이 있다. 혹시라도 영화 데드 맨 워킹을 본 사람이라면 그 걸음의 무게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어떤생이든 죽음의 무게는 엇비슷할 거라는 생각. 그것이 우리가 그들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이유다.

헌법 재판소는 지난 달 28일 살인등의 형에 대해 두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생명은 헌법의 기본권이지만 모든 규범을 초월해 영구히 타당한 권리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다른 생명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사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주된 요지이다.

그러나 생명이 진정으로 가치있는 이유는 법이 그것을 보장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가 존재의 모든 이유이기 때문이다. 생명은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다. 무엇보다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이번에 헌법소원을 했던 사형수가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평생감옥에서 보낼지언정 살아남기를 원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내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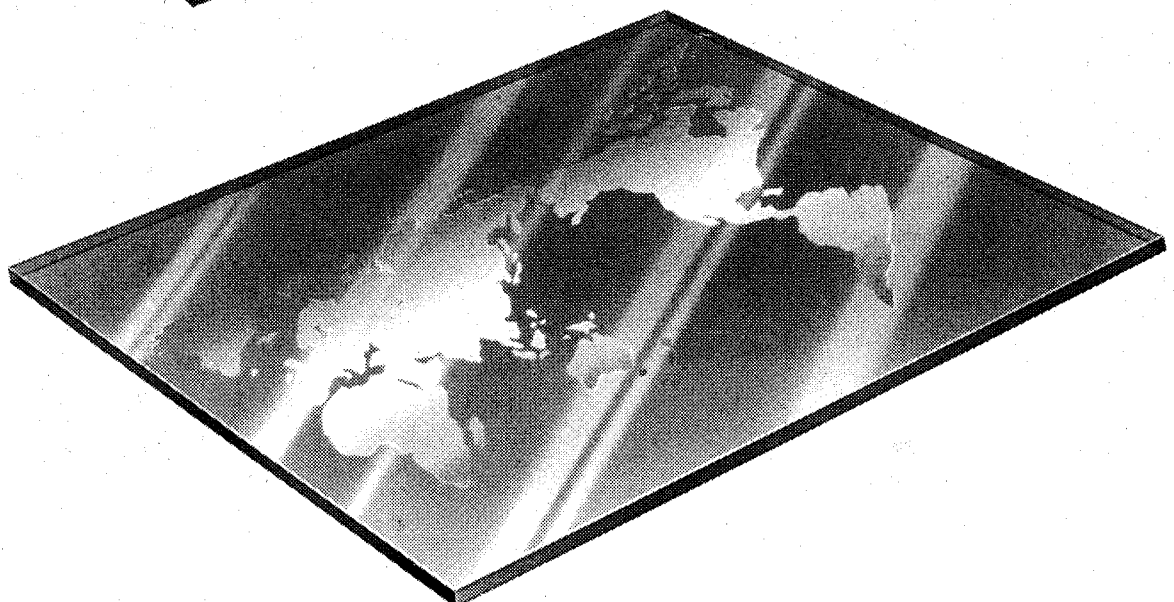


생명에 대한 얼마만큼의 외경심을 담고 있는가?

물론 그의 삶은 다른 생명이 지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고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일 수도 있다. 그래서 현재의 주장대로 공공의 이익과 다른 생명을 위해, 그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고 치자. 문제는 이 판단 역시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관할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이다. 무고한 사람을 죽인 후 나중에야 그의 무죄가 입증됐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죽음은 절대로 되돌릴 수 없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이고 사회의 절대적인 영향하에 있음을 인정할 때 범죄의 정도가 아무리 무겁더라도 그것은 그 개인의 탓만으로 돌릴 수는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성장하는데 있어 사회도 일조한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것은 격리가 아니라 평생 교화이다.

HANGGLAS



세계 10대 유리메이커, 한국유리 -40년 외길의 결실입니다.

불모지였던 국내 유리산업의 용광로에 불을 지핀 이래, 오로지 유리에만 전념해 온 40년 외길. 이제, 그 결실로 한국유리는 우리나라 유리산업을 대표하며, 세계10대 유리종합메이커로 성장하였습니다.

더 좋은 유리를 통해 세상을 밝고, 아름답고, 이롭게

HANGGLAS

한국유리공업주식회사

한국유리가 만듭니다

판유리, 관유리, 유리섬유, 유리장섬유, 결정화유리, 건축용안전유리, 자동차안전유리, TV브라운관유리, 경질유리, 실크트